

당 가치 · 비전 공유, 자질 함양

민주 전북도당, 오늘 '정치 아카데미' 개강 6주간 진행

정세균 전 총리 주제 강연부터 현역 국회의원의 경험 공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은 4일 개강식을 갖고, 총 6주에 걸쳐 '정치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도당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민주적 자질과 도덕성, 정책 능력을 겸

비한 선출직 공직자 육성을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인 정세균 전 총리가 '더불어민주당 가치와 비전'이라는 주제 강연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자 국가균형

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국회의원,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 송재호 국회의원, 이광재 국회의원, 이소영 국회의원 등 현직 국회의원과 전문 강사를 초빙, 다양한 분야의 정치이론과 실제 경험 등을 공유하며, 정치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2022년 대선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의

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민주당 정권 재창출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위해 선출직 공직자들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기회로 삼아 무엇보다 전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전문 정치가들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대응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단계적 일상화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내년 1월 지방자치법 본격 시행... 지방의회 준비사항 공유

도의회, 시·군의회 담당자와 업무연찬회... 인사권 독립 등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3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도내 시·군의회 담당자와 내년 1월 지방자치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준비사항에 대한 업무연찬회를 실시했다.

이날 연찬회는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과 김인태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시·군의회 실무 담당자 등 47명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앞서 지난 8월 1차 연찬회를 갖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쟁점과 후속 조치 사항 등을 공유한 데 이어, 이날 2차 연찬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 전북도의회가 준비하고 있는 실무에 대해 시·군의회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찬회는 도의회사무처 전용용 총무담당관의 자치법규 정비상황을 설명



전북도의회는 3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도내 시·군의회 담당자와 내년 1월 지방자치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준비사항에 대한 업무연찬회를 실시했다.

한 뒤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송지용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도의회와 시·군 의회간 긴밀한 협

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북도의회가 시·군의회와 정보를 공유하며,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지난 2일 무주 안성리 죽천리 주택화재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황의탁 전북도의회 의원.

"주택화재보험 가입 안내 조치 시급"

황의탁 도의원, 안성면 주택화재 현장 점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황의탁(더불어민주당, 무주군)의원이 지난 2일 무주군 안성리 죽천리 주택화재 현장을 면밀히 점검한 뒤, 재발방지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황의탁 의원이 방문·점검한 현장은 금일 오전 8시경에 전기적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약 2,500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 중이다.

다행히 주택의 소유자인 김OO씨가 부재 중이었고, 신고를 접수한 소방대원들이 신속히 출동

해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황의탁 의원은 "화재 피해자 김OO씨가 화재보험에 미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재산피해 일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유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각종 주택화재보험의 가입을 안내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낮은 기온과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평소 소보다 높은 수준의 예방책이 필요하다"며 "화재예방대책에는 완성성이 없다는 마음으로 전복소방본부 등과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생산·판매 금지'

윤준병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안' 대표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 촉진·공공 복리 증진 기여하려는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3일, 2035년부터 시·도지사가 내연기관을 사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육지수송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1.9%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의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2035년부터 시·도지사가 내연기관을 사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탄

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발의를 설명했다.

윤준병 의원은 "2025년 네덜란드,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2030년 독일, 인도, 이스라엘, 2035년 영국, 미국 캘리포니아주, 2040년 프랑스, 스페인, 대만, 싱가포르 등이 내연기관 신차의 판매 금지를 선언했다"며 "이처럼 자동차 중 주류인 독일과 영국에서도 내연기관차 퇴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고, 다른 세계 주요 국가들과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 역시 온실가스 배출을 과감하게 줄이기 위해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 등 강행책을 꺼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이행 과정에서 산업계의 고통이 수반되는 만큼, 시장에 주는 충격을 고려해 해당 산업계에 대한 국가적 지원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탄소중립으로의 성공적인 안착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유호상 기자



이원택 의원, 농정신문 선정 국감 최우수위원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3일 한국농정신문 선정 '국정감사 최우수위원상'을 수상했다.

한국농정신문은 올해도 국정감사 평가를 위해 지난달 5일부터 20일까지 16일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1일부터는 3차례 걸쳐 현장성, 성실성, 전문성을 기준으로 한 평가결과를 종합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을 비롯한 서삼석 위성곤 의원 국민의회 이만희 의원이 2021년도 농정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우수 의원으로 최종 선정됐다. 초선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이원택 의원은 기후위기와 자연재해로 인한 농민의 어려움을 현장감 있게 전달한 점이 돋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최대 곡창지대인 전북도의 도열병 확산피해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조사와 대책 마련, 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가격변동에 대한 선제적 시장 격리조치 시행, 코로나19로 인한 농업 인력난 해결,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가족분노 처리방안 수립을 강조하면서 재난, 재해, 시장불안 등 농업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전국농민회 박홍식 의장은 "이원택 의원께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효율성 개선을 비롯해, 농기계사고 문제 해결을 통한 농민 안전 확보를 촉구한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반영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은 "우리 농민들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 부진, 고질적인 유통구조 문제로 인한 소득 하방 압력 등 환경적·구조적 위협에 처해 있다"면서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농업 현장의 장·단기 문제해결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호상 기자

"국민연금 대납제도 활용률 1% 채 안돼"

이용호 의원, 제도 활성화법 대표발의

현재 가족 등이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는 대납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3일, '국민연금 대납제도활성화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아닌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타인이 대납할 수 있는 대납제도를 시행 중에 있지만, 대납제도를 활용하는 국민 비율은 1%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국민연금 납부고지대상

자는 45만8,310명으로 이 중 대납국민은 397,644명(0.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은 "국민연금 대납제도를 충분히 활용해 본인에게 유리하게 유지하는 것이 노후에 노령연금액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그러나, 일반 국민 중 국민연금 대납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 활용하는 경우는 납부고지대상자의 1%도 안되는 상황이다. 대납제도 대외홍보도 연 1회에 불과하고, 홈페이지에 민원 안내 코너를 찾아볼 수 없거나 블로그를 봐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현재 4대 사회보험 통합수업무처리지침에 국민연금 대납제도를 명시하고 있을 뿐 법률 근거가 없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납부고지대상자인 국민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예수병원 123주년, 그 처음을 기억합니다

1898년 11월 3일

당시 진료소 건물은 흙벽과 초가 지붕으로 된 전통적인 한국집이었습니다.

마티잉골드(예수병원 초대 원장)의 일을 도와준 사람은 예씨로 첫날에는 6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123년이 지난 예수병원은 아직도 지역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PMC 예수병원 Presbyterian Medical Center

54987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1899-1843 / 063-230-8114 / 080-077-7575